

시민역량강화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방향 연구
- 시민참여기반 미디어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책임 정혜실
공동연구 천원석
공동연구 최운경
공동연구 성희령
공동연구 유미경
공동연구 정연욱

(사)안산공동체미디어 / 경기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사회협력연구

시민역량강화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방향 연구

- 시민참여기반 미디어 활동을 중심으로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및 연구참여자

II. 본론

1. 국내·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사례
 - 1) 미디어리터러시교육 해외사례
 - 2) 미디어리터러시교육 국내사례
2. 경기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현황과 한계
3. 시민참여적 미디어활동이 미디어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 1) 언론·미디어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 2) 혐오표현과 차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 3) 공동체 감수성으로서 포용, 소통, 공감 능력의 향상
 - 4) 시민주체로서 공론장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실천

III. 결론 및 제언

: 시민참여 기반의 미디어리터러시 시민 역량 강화 방안 및 제언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사회는 2024년 12월 초 계엄령 선포 이후 광장을 메웠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공론장¹⁾들로 인해 뜨거웠고, 그 공론장에서 쏟아진 시민들의 목소리는 극명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각 언론사와 방송사 그리고 온라인 미디어들이 쏟아낸 내용들은 이러한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보도와 말들로 채워졌다. 한쪽의 시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선포와 더불어 국회와 선관위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 지배하려 했던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탄핵을 찬성했다. 반면 또 한쪽의 시민들은 이를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라고 정당화하며 탄핵을 반대하였다. 그리고 이들 각 진영이 주최하는 관련 집회가 광화문과 용산을 비롯한 곳곳에서 동시에 열렸다.²⁾ 이러한 갈등의 표출은 극단적인 언어폭력을 동반하기도 했고, 실제 폭력으로 가시화되어 결국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러한 갈등 속에 문제가 된 것은 선거 부정에 중국인들이 개입되었다는 가짜뉴스들로 인한 인종차별적인 혐오 선동의 증가였다. 극우 집단은 탄핵 이후에도 건대 앞과 명동 그리고 대림동 일대에서 중국에서 온 이주민에게만이 아니라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한 여행객들에게까지 위협을 가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³⁾ 이러한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

1) '시민들은 서로의 의견을 지혜롭게 모아가는 공론장 안에서 공동체를 위한 여러 결정들을 한다. 그래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공화국이다. 우리가 합의한 조화의 목적과 방향은 민주주의다.' 오찬호(2025) 『납작한 말들』, 어크로스, 278p.

'다양한 공동체미디어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는, 각 공동체 집단이 그들 공동체의 특정한 요구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접근과 역량을 갖추게 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공론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루티나 체프먼·나디아 벨라다·헬무트 페이슬(2020), 『모두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유럽평의회,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6p.

2) <https://www.yna.co.kr/view/MYH20250321024800038> 연합뉴스 2025년 3월 21일자 뉴스보도
극한 치닫는 갈등에 시민 피로감... "불안정성 해소해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19774> KBS뉴스 2025년 4월 5일자 뉴스
'윤석열 파면' 다양한 반응 ... "갈등 멈춰야"

3)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20600041#ENT> 경향신문 2025년 9월 12일 강한들기자
"중국인 점령" 이런 혐증 음모론 현수막, 선거 끝나고도 활개... 해결책 놓고 갑론을박
'내일로미래로당' 명의로 이달만 1269개 걸어 부정선거론 등 중국 비난 혐오 내용이 대다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1716350001342> 한국일보 2025년 1월 19일자
박소영기자 "중국이 선거 개입" 계엄 사태 일으킨 가짜뉴스, 도대체 왜 믿나?
<https://v.daum.net/v/20250923214548426> 국민일보 2025년 9월 23일자 백재연기자

은 국무회의에서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깡판’이자 업무방해”⁴⁾라고 언급하면서 대단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한국 사회가 지켜 온 헌법과 민주주의를 다시 돌아보며 혐오 표현을 금지할 법안이나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⁵⁾ 그리고 그 무엇보다 미디어가 미치는 악영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⁶⁾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미디어에 의한 왜곡된 정보와 잘못된 신념의 전파, 알고리즘으로 인한 인지적 편향, 그리고 혐오 표현과 차별적인 발언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민사회는 위에서 기술한 여러 문제 상황들의 원인으로 주류 매체나 뉴스 전문 매체를 비롯하여 유튜브와 그 외 SNS 그리고 인터넷 신문들의 음모론이나 왜곡된 정보와 가짜뉴스들을 지목하고 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된 미디어는 유튜브와 같은 매체다.⁷⁾ 무엇보다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리고, 슈퍼챗을 받기 위한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특정 집단을 자극하거나 선동하기 위한 유튜버들의 방송이 해악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비록 극우 세력은 아니어도 기존의 주류 미디어들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방송법의 제약에 막혀서 마땅히 해야 할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상대 진영을 조롱하거나 정치인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비평하는 채널들이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어느 것도 결코 건강한 미디어 매체의 기능으로 보기는 어렵다.⁸⁾

명동·대림·안산... 혐중 시위에 몸 피하는 中 관광객

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17817.html 한겨레신문 2025년 9월 10일자 송경희 기자, 이 대통령 “명동 혐중 시위가 표현의 자유? 깡판이자 업무방해”

5)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25_0003344651 뉴시스 2025년 9월 25일자 한이재기자 “혐오는 표현의 자유 아냐”... 대림역 극우 ‘혐중 집회’에 맞불 “혐오와 차별 선동에 법적 규제해야”

6) <https://segynews.com/article/1065568576871106> 2025년 3월 19일자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서울시교육청,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디어리터러시와 토론 교육 강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516160002551> 한국일보 2025년 8월 11일자 김영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선임전문관 기고 “일관된 ‘미디어리터러시’ 정책의 중요성”
<https://www.sedaily.com/NewsView/2GRFW94WIZ> 서울경제 2025년 4월 8일자 최수문 기자 유인촌 “가짜뉴스와 AI, 미디어의 주요 숙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필요” 강조

7)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04/23/2TNTW36Y4ZEALGA2RPGP7SGQM4/> 조선일보 2025년 4월 23일자 사설 “돈벌이용 가짜뉴스와 정치 양극화 온상 된 유튜브

8)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347710> 시사저널

그럴 때 미디어는 어떤 역할과 책무를 수행할지를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들 간의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류 미디어들은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을 준수한다. 그리고 각 방송국은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방송의 편향성이나 차별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또한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도 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한다. 이처럼 언론법을 통한 규제와 함께, 인권보도준칙이 있어서 미디어가 기사를 쓰고 송출하는데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언론은 윤리적 저널리즘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취재 윤리에 따라 기사를 쓰고 방송을 송출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법과 원칙이 있어도 각 신문사 혹은 방송국 데스크의 결정과 언론인들의 시각 차이로 인해 기사와 내용의 사실과는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지난 12월부터 올해 6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난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수많은 유튜브나 SNS는 마치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뉴스 보도인 양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혐오 선동 방송을 해도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제재는 쉽지 않았다. 유튜브에도 분명히 콘텐츠 제작에 관한 유튜브 정책 가이드가 있다. 하지만 많은 유튜버들이 그러한 정책 가이드를 유의하면서 콘텐츠를 생산하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채널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제작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미디어의 역할과 책무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말이다. 더구나 미디어 다변화 시대이자 AI 사용으로 정보 검색이나 활용이 더 쉬워진 사회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들에게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면, 시민들은 미디어가 미치는 해악에 대항하기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은 어떻게 갖출 수 있고, 그러한 교육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를 말이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시민들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이 이루어지

2025년 9월 26일자 정운성기자

‘여의도 권력’위에 ‘유튜브 권력’... 한국 정치 뒤흔드는 ‘정치 상왕’ 김여준-고성국

“사실이나 결정적 근거 없는 의혹을 청문회로 키운 핵심 동력은 진보 성향 유튜버들”

“보수 유튜버도 마찬가지다. 12·3 비상계엄 전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잘 알려진 고성국“

고 있는 현장의 사례다. 여기에는 해외 사례를 비롯하여 국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사례들과 함께, 경기도의 현황과 사례도 파악하면서 시민들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교육의 현장이나 공공기관과 더불어 시민들의 자발성이 담보되는 시민참여 기반의 공동체미디어 활동 현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미디어 다변화 시대에 OTT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콘텐츠 제작자로 하여금 다양하고 자유로운 기획으로 전 세계를 시청자로 삼을 수 있게 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누구나 콘텐츠 제작자가 될 수 있는 1인 크리에이터들이 큰 투자 비용 없이도 무엇이든 업로드 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매체를 통해 그들이 만든 콘텐츠가 쉽게 유통이 가능해지고 널리 공유되면서 글로벌 미디어로의 확장도 가능해졌다. 다양하고도 새로운 미디어 매체의 확장과 영향력으로 인해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상업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넘어서 여론의 향방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⁹⁾

하지만 직업적인 인플루언서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도 미디어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지역 곳곳에서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를 지향하며 운영되는 공동체라디오를 비롯해 마을공동체미디어와 같은 다양한 매체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⁰⁾ 이에 따라 이제 시민들은 단순한 미디어 소비자가 아닌 직접 생산자로서의 역할

9) <https://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98974> Hello tv News

2025년 3월 5일 윤경민 보도전문위원 가짜뉴스의 부매량: 무책임한 인플루언서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조희수에 눈먼 인플루언서, 당신이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 인플루언서도 저널리즘을 배워라

10) <https://www.peoplepower21.org/magazine/716468> 참여연대 2004년 12월

시민참여방송 ‘기지개’ 켜다.

‘시민참여’를 모토로 하는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개념의 방송국 실험과 모색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TV 방송으로 위성 공중파를 이용한 시민방송(이하 RTV)의 개국 이후, 풀뿌리 시민 사회와 노동조합 등도 소출력 공중파와 인터넷 등의 전송수단을 이용한 공동체 라디오 방송 실험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https://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2382> 평화뉴스 2005년 8월 11일자

주민참여/퍼블릭 액세스 실현을 위한 미디어교육 “카메라로 만나는 행복한 세상”

<https://www.khan.co.kr/article/202108010949011#ENT> 경향신문 2021년 8월 1일자 김태훈기자
공동체라디오에 지역소식 실어보네요. “한정된 범위의 소규모 지역만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FM 라디오 방송인 공동체라디오는 국내에선 대체로 송신소로부터 반경 약 5km 이내에서만 청취할 수 있다. 그만큼 지역에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의 방송을 주민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 내보내 지역사회 내부의 소통을 더욱 증대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마포FM 송덕호대표 인터뷰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81049.html> 한겨레신문 2023년 2월 24일자

최상원기자 동네 소식을 친구 목소리... 공동체라디오 지속가능하려면

“모든 프로그램을 남해 주민들이 직접 만드니까, 다른 방송에선 들을 수 없는 이웃 이야기가 많아 좋습니다.”

수행도 가능해진 것이다. 이처럼 시민들이 미디어 제작자라는 영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 참여자들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차별이 없는 평등한 미디어를 제작하기 위한 디지털 시민성¹¹⁾을 요구받게 되었다.

시민들이 콘텐츠 창작에 참여하고자 할 때 이들은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만이 아닌 타인의 권리 역시 존중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요구가 충족되려면 시민참여 미디어 제작 과정 자체가 미디어리터러시로서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방송참여자들의 다양한 계층 및 그들의 정체성을 포괄하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지닌 디지털 시민성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강화된 디지털 시민성의 역량은 또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의 공론장 형성과 민주주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미디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여,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시민참여 미디어 활동은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과정이 되어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나아가 누구에게나 평등한 접근성이 보장되면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민주적인 공론장으로써 차별 없는 공동체들의 연결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민참여 기반의 미디어 활동은 그러한 역량들을 지속적으로 키워가는 과정으로 확대 영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52018.html> 한겨레신문, 2024년 8월 3일자
조일준기자, 주류미디어 외면한 작은 목소리에 마이크를 ... '우리 동네 라디오'
어르신·세월호·외국인 소재 30여개 프로그램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2289 오마이뉴스
2025년 7월 28일자 정은아 기자 마을미디어에서 시작한 라디오, '시민의 주파수'를 움직인다.

수원공동체라디오 제작기 담은 <시작했습니다, 공동체라디오>출간 프로젝트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7920 오마이뉴스
2025년 9월 23일 장영우 기자 어린이도 배울 만큼 쉽다, 안산 단원구에만 있는 특별한 방송
-단원FM 최윤경국장 인터뷰

- 11) '디지털 시민성은 온라인 정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지식, 콘텐츠 제작, 온라인 행위의 윤리적 의식을 갖는 시민 역량으로 개념화한다. 디지털 시민성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절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규범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토대로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이해하며,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서 존중과 배려를 표현하는 교양과 예절을 지키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와 태도다. 디지털 시민성은 본래의 '시민성'을 바탕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다른 사람과 협력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 정용복(2024), 『AI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커뮤니케이션북스, 110p.

그러므로 본 연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시민참여 미디어 활동이 언론과 미디어 콘텐츠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시민참여 미디어 활동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미디어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미디어 교육을 받고, 이후 지속적인 미디어제작을 하도록 독려받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 활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시민 참여자들이 참여 전후로 기존의 레저시 미디어들과 다변화된 미디어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이해, 분석, 역량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시민참여 미디어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큰 문제인 혐오 표현과 차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차별적인 언행, 비하 발언 및 문화적 편파와 함께 개인을 향한 혐오 발언 등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인식하며 이를 제작 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어도 최소한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제작에 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국 이러한 노력과 의식이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강화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보고자 함이다.

세 번째는 **공동체 감수성으로 포용, 소통, 공감**이 이루어지는 **시민참여 미디어 활동이 가능한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 간의 이해 정도를 나타내는 공동체 감수성은 포용의 정도나 소통의 가능성 그리고 상대에 대한 공감 등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미디어 제작 과정에서 만나는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듣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감수성들이 채워지고 있는지를 보고자 함이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시민참여 미디어 활동이라는 시민의 공론장 참여가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천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지역공동체로 살아가는 시민들이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시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자기 삶의 문제로 받아들이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각자의 의견을 드러낼 수 있는 공적인 창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동체미디어가 그러한 공적인 창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때 시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그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가는 민주주의 실천의 장이 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함이다. 이는 지역의 현안을 들여다보고자 할 때 지역을 읽어내는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경기도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미디어리터러시란 무엇인가?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가 주된 대상으로 삼은 미디어의 유형에 따라 그 의미 비중을 달리한다. 영상에 주목하였던 김양은(2016)은 영상 제작자가 어떤 의도로 영상 메시지를 구성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읽어내는 것이 미디어리터러시의 일차 목표라고 말한다. 그림, 사진 등 시각적 기호와 배경음악, 음향효과, 카메라 움직임 등은 영상 메시지를 구성하는 단위이고, 이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메시지들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영상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초기의 미디어리터러시는 영상 언어의 문법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였고, 이후에는 이용자와 사회 상황 등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즉 미디어리터러시의 개념이 단순히 영상 제작자들이 구성한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을 넘어서 이용자 스스로 영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장소원, 이수연 외(2024)는 정보 전달에 주목하였는데, 미디어리터러시는 현대의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이해하고 사용·평가하며, 나아가 정보를 생산하기도 하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보의 비판적 수용이다. 즉, 여러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정보들 중에서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는 어떤 것인지, 해당 정보의 내용이 올바른지, 나아가 정보의 출처가 믿을만한 곳인지 등을 미디어의 소비자가 직접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정보의 생산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미디어의 윤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내가 생산해 내는 정보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거듭 확인해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내가 무심코 옮긴 가짜뉴스에 나와 내 가족, 내 친구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 더글라스 켈너와 제프 셰어(2022)는 텍스트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짜’나 ‘진짜’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며, 우리의 미디어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능숙하고 비판적인 이용자나 공공 담론의 생산자가 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시민은 정보를 이해하고, 권력에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사회적·환경적·불평등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보는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일 수 없다는 비판적 미디어리

터러시의 개념적 이해에서 출발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비판적 미디어리터러시의 목적은 민주주의, 정의, 그리고 시민권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자신의 공동체, 국가, 세계화된 세상에서 사회적 정의를 위한 자기 역할을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결국 비판적 관점에서 미디어리터러시란 미디어 수용자이자 생산자인 시민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비판함에 있어서 시민의 권리와 사회적 정의,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성찰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박선미(2025)는 디지털 시대에서 AI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과 연결된 시대에는 인간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던 미디어가 인간과 기계의 커뮤니케이션 시대를 열었다고 주장한다.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AI에 명령어를 입력하였을 때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저작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데이터가 개입된 정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때 이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향후 심각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AI와의 대화 과정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올바르게 읽어내는 것은 물론 그 이면에 어떠한 의미와 맥락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리고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비평할 수 있는 역량도 요구된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AI 미디어리터러시는 AI와 미디어의 융합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미디어 접근, 비판적 사고, 정보 판별 능력, 윤리적 판단, 창의적 표현, 사회적 소통과 참여 능력을 향상하는 포괄적인 역량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AI 미디어리터러시는 데이터 리터러시(AI가 데이터를 수집·정리·조작·분석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능력)와 알고리즘 리터러시(AI 알고리즘이 데이터에서 패턴의 연관성을 찾는 방법을 이해하는 능력)를 포함한다고 말한다. (Miao & Holmes, 2021 재인용)

유럽평의회에서 발간한 『모두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마르티나 채프먼, 나디아 벨라디, 헬무트 페이슬, 2020)에서는 미디어리터러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람들이 매일 접하는 모든 정보와 콘텐츠에 대해, 그리고 미디어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기여하며 참여할지에 대해,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련의 인지적, 기술적, 사회적 역량과 지식, 자신감으로 이해된다. 여기에는 정보의 출처와 상관없이 미디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미디어제작과 편집 및 자금 조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행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된다. 최근에는 그 외에도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미디어의 생산과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도 포함된다. 또한 미디어리터러시를 갖춘다는 것은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를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공론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참여적인 가능성을 충분히 발현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정의는 미디어를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만이 아니라 비판적인 이해를 위한 지식과 비평적 이해력까지 포함하며, 더 나아가 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는 경영적 능력과 책임감 있는 윤리적인 태도까지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에 따라 “모든 연령과 능력,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디어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강좌를 제공하면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역량이 상당히 증진”된다고 본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미디어리터러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리터러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미디어리터러시란 **첫째는 미디어에 관한 윤리의식이다.** 공동체 라디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상파라디오 사업자로 직접 승인된 미디어 매체이기에 방송법이나 방송심의규정을 라디오제작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시킨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제작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모니터링을 해서 피드백을 주고받기도 한다. 그리고 청취자위원회를 통해 방송의 내용들에 관해 의견을 청취하기도 한다. 마을신문이나 지역신문의 경우에는 윤리적 저널리즘 교육을 반드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언론보도준칙을 함께 공부하기도 한다. 그리고 유튜브에 업로드 할 경우에는 유튜브 가이드라인 정책에 관해 알려주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차별적인 발언이나 편향적인 인식의 문제, 혹은 혐오 표현 금지와 타문화에 대한 비하 금지 등을 교육한다.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정보인지 팩트 체크와 더불어 교차 검사도 진행한다.

둘째는 시민의 권리로써 공론장 참여다. 지역의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시의원이나 도의원, 시민, 공무원, 전문가 등을 초대하여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눔으로써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나 주요 이슈를 알게 한다. 비록 전문 방송인이 아닌 시민들의 방송이지만 시민들이 직접 방송진행자나 기자가 되어 미디어제작에 참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향상될 뿐 아니라 여러 의견을 듣고 나누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장이 되는 것이다.

셋째, 공동체에 관한 이해다. 예를 들어 단원FM공동체라디오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나 현안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지역사회를 두루 살피는 교육을 하고 있다. 먼저는 안산은 반월·

사회공단과 같은 산단이 위치한 곳이자 세월호의 아픔을 겪은 도시이기에 무엇보다 생명·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안산은 70여 만의 인구 가운데 이주민 비율이 약 15% 정도이며, 11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단원FM공동체라디오는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한 다양성과 포용성의 필요성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안에 장애인 단체들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이해 교육은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미디어의 역할과 사회적 정의,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공존의 가치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이용자이자 제작자로서 기술적 능력의 습득이다. 예를 들면 공동체 라디오의 경우에 콘텐츠 기획, 큐시트 및 대본 작성법, 콘솔 작동, 녹음, 편집, 라이브 송출에 관해 교육한다. 마을신문이나 지역신문의 경우에는 저널리즘 스쿨을 통해 기사작성법, 취재, 인터뷰 태도, 사실 근거 확인 등을 가르친다. 이는 제작자 또는 기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시민이 콘텐츠 생산자로서 역량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 된다.

이러한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정의를 근간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민참여기반의 공동체미디어 활동으로 인해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이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연구자와 미디어 운영자 그리고 시민참여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시민참여 기반의 미디어 활동으로서 공동체미디어

본 연구는 미디어리터러시가 시민들에게 미디어의 소비자로서의 위치만이 아닌 생산자의 위치에서도 필요한 역량임을 확인했다. 누구나 1인 크리에이터가 되기 쉬운 시대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미디어제작이 용이하다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AI를 활용한 음성이나 영상 조작 등의 딥페이크 영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알고리즘에 의한 혐오 표현이 담긴 화면이나 여성을 성차별 혹은 성적 대상화하는 폭력적인 영상을 마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¹²⁾¹³⁾ 또 한편에서는 잘못된 뉴스를 퍼뜨리는 가짜

12) ‘각종 OTT 서비스를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산업 안에서 ‘돈벌이’로부터 자유로운 작업이란 없다. 모든 디지털 미디어 상품은 유저와 구독자들의 ‘한정적인 주목’을 끌어들이기 위해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주목경쟁(attention struggle)을 벌이고 있다.’ 손희정(2024), 「디지털 시대 고어 남성성의 등장」, 『디지털시대의 페미니즘』, 한국여성학회기획, 한겨레출판, 22~23p.

13) ‘디지털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한 사실을 피해자가 인지한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상황이 되므로 피해자를 엄청난 패닉 상태로 몰고 간다. 따라서 일반

뉴스나 왜곡된 정보에 의해 성별 간,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기도 한다.

김용찬, 김진희 외(2023)는 미디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했는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위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반응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사람은 정보 스캐닝(collective information scanning)을 통해 온·오프라인 상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 흘러 다니는 정보 중에서 공동체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발견하면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렇게 마주친 정보들을 모으고 공유하게 되는데, 이것을 ‘공동체 스캐닝’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 적극적으로 위험 이슈와 정보를 추구하는 과정을 ‘공동체적 정보 추구 과정’이라 부른다. 이와 같은 공동체의 정보 스캐닝이나 정보 추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공동체에 속한 미디어나 단체/모임이다.

한국 사회에는 책임이나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힘든 콘텐츠들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다. 반면 공적인 책임과 미디어 윤리를 실천하며 공동체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참여 기반의 미디어 활동도 있다. 이러한 미디어 활동에는 마을미디어, 마을신문, 지역신문, 공동체라디오 등이 있으며, 이들을 공동체미디어 또는 마을공동체미디어라고 부른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이나 마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민기자나, 라디오 또는 영상을 제작하는 미디어 활동가들이 소속된 비영리단체나 동아리 혹은 모임을 통틀어 공동체미디어라고 정의한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에서는 공동체미디어의 주요한 특징으로 시민사회 구성원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리하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꼽는다. 그리고 자원활동가들의 역할을 대부분의 공동체 미디어 조직들이 활동하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본다. 그러면서 공동체 미디어를 하나로 쫄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는, 각 공동체 집단이 그들 공동체의 특정한 요구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접근과 역량을 갖추게 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공론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결과로 많은 공동체 사업과 활동은 공적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던 공동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부여되도록 한다.

적인 성폭력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양산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물리적 성폭력보다 더 심한 후유증을 경험하며,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어 오늘날 디지털 성폭력의 강도는 나날이 더 심해지고 악마화되고 있으며, 그 정점을 찍은 것은 2020년 초 그 실체가 드러난 ‘n번방’ 사건이었다.’ 유서연(2021), 『시각의 폭력』, 동녘, 32p.

따라서 공동체미디어의 공통된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나 상업적, 종교적 기관 및 정당으로부터의 독립, 2) 비영리적 지향, 3)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시민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 4) 사회적 이익과 공동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5) 공동체 방송국이 복무하는 지역공동체나 관심 또는 이해를 공유하는 공동체에 대한 책무성과 그들에 의한 소유, 6) 포괄적이고 상호문화적인 실천에 대한 헌신이다.

이러한 특성에 맞게 공동체미디어는 나이를 불문하고 장애인을 포함하여 성소수자와 소수 언어 사용자들에게 디지털 미디어 역량과 윤리적 저널리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디어의 다원성을 증진하고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육성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밀접하게 결합시키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공동체미디어를 살펴보면, 300여 개가 넘는 마을공동체미디어들의 조직인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협회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지상파사업자로 선정되어 라디오 주파수를 가진 24개의 공동체라디오가 함께하는 사단법인 한국공동체라디오협회가 있다. 이 중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의 공동체라디오들로 구리FM, 성남FM, 수원FM, 단원FM이 있으며,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시민참여 기반의 미디어 활동으로 보는 공동체미디어는 마을미디어, 마을신문, 지역신문, 공동체라디오들이다. 본 연구는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방향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연구 결과의 범위를 경기도의 제도 변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연구방법론으로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 방법론을 따랐다. 연구자들은 주로 연구참여자들과 인터뷰를 하거나 참여관찰을 했으며, 필요시 문헌이나 온라인 참고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전문가들과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심층면접을 하였고, 심층면접은 전문가와 진행할 경우 간담회이자 집담회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시민참여자는 직접 만나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참여관찰을 통해 본 연구의 내용을 보강해 줄 단원FM의 활동 경험을 녹아 내었다. 국내·외 사례와 경기도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문헌조사와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는 첫 번째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중심으로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독립미디어연구소 공동대표이기도 한 연구자와, 과거 서울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독립미디어연구소 연구원인 전문가와 진행했다. 두 번째는 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직접 수행하면서 미디어제작 교육이나 저널리즘 스쿨을 운영하며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운영자이자 미디어활동가인 전문가들을 만나 간담회 또는 집담회와 같은 형식으로 심층 인터뷰했다. 충청도의 옥천신문과 옥천FM, 그리고 대구의 성서FM에서 교육을 진행하거나 미디어를 운영하는 주체들이다. 세 번째는 경기도 수원에서 공동체라디오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마을신문을 운영하고 있는 매탄마을신문의 공동대표를 심층 인터뷰했다.

시민인터뷰는 안산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면서 (사)안산공동체미디어 단원FM공동체라디오에서 실시한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안산의 고잔동 마을신문에서 시민기자로 활동했거나, 현재 단원FM공동체라디오에서 활동하는 시민 방송활동가들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단원FM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과 미디어 제작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학교의 운영주체인 교장 선생님과 미디어제작 경험이 있는 고등학교의 교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들은 총 6명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로 진행되었다. 심층 인터뷰 참여자는 전문가 9명과 시민참여자 9명으로 총 18명이 참여하였다. 공동체라디오는 단원FM, 성서FM, 옥천FM 3곳이 연구 대상이었으며, 지역신문은 옥천신문이, 마을신문은 고잔동 마을신문과, 매탄 마을신문으로 3개가 지역 공동체 언론이 대상이 되었다. 교육기관은 별망초가 주로 연구 대상이었다. 그 외 현황 파악을 위해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서, 경기도 지역의 현황을 중요하게 살펴보았다. 연구 기간이 짧고, 예산의 제한으로 인해 연구의 대상과 지역이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이후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연구의 대상과 지역이 확대되어 경기도 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실태와 과제를 더 심도 있게 밝혀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다만 본 연구가 미디어리터러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이론적으로 구성해 내는 것에 머물거나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예시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경기도에서 실행 가능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방안을 시민들의 참여가 기반이 되는 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경기도 지역 내의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파악하고 학교와 시민사회 안에서 필요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실행에 반영할지에 대해 심도 있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표 1 연구 인터뷰 참여자 명단〉

전문가(연구자 및 운영자)			시민/교육자		
번호	성명	소속	번호	성명	소속
1	김지현	독립미디어연구소 공동대표	1	강경의	단원FM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참여자
2	정은경	독립미디어연구소 연구원 전)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2	기봉설	단원FM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참여자
3	황민호	옥천신문 대표/저널리즘 스쿨	3	얼쑤	전) 안산 고잔동마을신문 기자 /단원FM 방송활동가
4	이현경	옥천신문 기자/저널리즘 스쿨	4	안토	단원FM 방송활동가
5	이해수	옥천FM 편성국장	5	양석화	단원FM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참여자
6	최원혜	대구 성서FM 사무국장	6	윤작가	전) 고잔동마을신문 기자 /단원FM 방송활동가
7	서현정	대구 성서FM 미디어 강사	7	이정인	단원FM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참여자
8	이경희	대구 성서FM 이사/ 저널리즘 스쿨 운영	8	정성조	안산 별망초 교장
9	서지연	수원 매탄마을신문 공동대표	9	안현정	안산 국제비즈니스고 교사

II. 본론

1. 국내·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사례

1)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해외사례

(1) 미국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사례

미국 사회는 1980년대 초, 케이블 TV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지역 커뮤니티의 표현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공익 채널 확보 의무를 명시한 법(Cable Communications Policy Act of 1984)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케이블 TV 사업자는 지역사회를 위해 특정 채널을 개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영상제작 장비, 편집실, 스튜디오,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기반해 각 지역에 커뮤니티 미디어센터(Community Media Center)들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채널들을 PEG(Public Educational and Governmental Access Chanel)이라고 한다. 이 채널을 통해 지자체, 학교 및 대학은 물론 시민 누구나 방송을 제작하고 송출할 수 있다. 비록 OTT 플랫폼의 부상 등으로 많은 PEG 채널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수백 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이들은 시민 저널리즘, 미디어 교육, 지역 소통 플랫폼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¹⁴⁾.

(2) 프랑스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사례

프랑스는 지역 미디어와 학교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비판적 사고’, ‘정보 판별 능력’ 등 미디어리터러시 역량과 밀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교육법 내에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전담 기관을 중심으로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센터인 끌레미(Centre de Liaison de l'enseignement et des médias d'information, CLEMI)는 1983년 설립되었으며,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의 공식 전담

14) 시청자미디어재단 『MEDIARY 10주년 특별호』에 실린 사례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홍보팀장 김영은 글이 실린〈모두를 위한 미디어 교육을 위하여: 미국과 유럽의 미디어센터 및 공립도서관의 역할〉에서 발췌하였다.
<https://moonpd.ai/ebook/ch005149/xw8s5lttfEmIA4MlgIVSIV6FfwTrBC>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끝레미는 교육부와 함께 일관된 미디어교육 전략과 방향을 수립하는 물론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학교에서의 언론과 미디어 주간’을 통해 학교와 지역 미디어 간 유대를 강화하고, 전문성 공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미디어는 학교 및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상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 팔루즈 지역의 라디오 방송국인 라디오 MNE(Radio MNE)는 매년 열리는 ‘언론과 미디어 주간’에 참여할 뿐 아니라, 학교 또는 지역 청년 센터 등과 협력하여 상시 미디어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 워크숍을 통해 직접 방송콘텐츠를 제작하며, 제작된 콘텐츠는 FM, 웹라디오, 팟캐스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송출된다¹⁵⁾.

(3) 핀란드의 미디어리터러시 사례

교육 강국으로 꼽히는 핀란드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서 선두이다. 1950년대에 시작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은 2017년 첫 순위가 발표된 유럽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1위를 매년 차지하고 있다. 미디어리터러시라는 단어조차 없던 시절, 정보를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곧 주권을 지키는 길이라는 시민들의 오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대중매체 교육’이 등장했다. 핀란드는 2014 국가교육과정의 미디어리터러시에 그래픽·영상 등 비주얼 개념까지 포함한 ‘멀티리터러시’ 교육을 전 학년 필수 내용으로 포함시켰다.

핀란드는 공교육 바깥에서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한다. FSME는 청소년 캠프모임을 통해 학교 밖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애쓰고 있다. 핀란드 아동복지연맹(MLL)을 비롯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각종 비영리단체는 다수 기업이나 민간 재단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흐름이 활성화되어 있다. 핀란드에선 시민들이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극우·성차별 사상으로 인해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정보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판별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¹⁶⁾

15) 위의 참고문헌과 동일함.

16) https://v.daum.net/v/20250905130112172?fbclid=IwdGRzaAMpEYpleHRuA2FibQIxMQABHvAmXqbxErFdgJT47f3hh4NjYCSgyGTanVbF7bbQ5lexCluJAoKgw4dpjzXa_aem_aN6odDXEKILEqcyf5lLeWg&sfnsm=mo 한국일보 2025년 9월 6일자 최은서 기자

(4) 영국의 미디어리터러시 사례

영국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은 1960년대에 문학비평과 창작의 도구로써 시작하여 1980년대 학교 교육에 도입되었고, 1990년대 이후 미디어 수용자의 능동적인 미디어 이용을 중시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디지털 미디어리터러시 정책으로 확대되었다.¹⁷⁾ 영국의 미디어리터러시 주체는 Ofcom,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Media & Sports),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등이며, 다양한 형태의 산하 기관들이 협력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¹⁸⁾

영국은 이러한 공적기관들의 미디어리터러시 외에도 공동체미디어들이 진행하는 미디어리터러시 사례들이 있다. 특히 무슬림 지역 여성들의 미디어 교육을 통한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성공한 사례로 꼽는 유럽평의회 평가도 있다. 그 사례는 영국의 브래드포드공동체방송국(BCB)이 판햄어린이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파키스탄 여성 무슬림 공동체에게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한 사례다. 라디오제작뿐만 아니라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자 단체 내부와 방송 결과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여성들의 목소리를 높이도록 용기를 줄 수 있었다고 한다.¹⁹⁾

(5) 캐나다의 미디어리터러시 사례

캐나다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은 1960년대 미국 대중문화의 확산에 대한 우려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위한 교육 체계 개편으로 필요성이 인식되어, 처음에는 “영화 교육(screen education)”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캐나다 영화교육 협회(Canadian Association for Screen Education)는 1960년대 말에 처음으로 토론토의 요크대(York University)에서 미디어 교사의 회합을 가졌고, 1978년 미디어리터러시협회(Association for Media Literacy)가 만들어지면서 미디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2년 교육자 및 미디어 전문가들이 밴쿠버에서 모여 캐나다 미디어교육(Canadian Association for Media Education)을 만들어 미디어에 대해 교육하고, 이를 장려하며, 미디어에서의 캐나다의 문화적 표현을 독려하기 시작하였다.

캐나다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별도의 법률은 없으나, 디지털 미디어 활용 및

17) 김여라(2019), 『현안분석 90호』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리터러시 해외 사례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 참조

18) 위의 연구보고서 사례와 동일한 출처임

19) 유럽평의회에서 발간한 책 『모두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참조

온라인 범죄 등과 관련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2012년에는 사이버따돌림(cyber bullying)을 포함한 학교 폭력 금지와 관련하여 「학교포용법(Accepting Schools Act)」을 제정하였다. 캐나다 10개의 주와 3개의 북부 지역(northern territories)은 자치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미디어 교육과정 또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미디어리터러시 협회는 1989년 ‘미디어리터러시 자료 가이드(Media Literacy ResourceGuide)’를 발간하였는데, 이 자료는 북미 지역에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활용되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미디어스마트(MediaSmarts)는 캐나다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²⁰⁾

(6) 호주의 미디어리터러시 사례

호주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은 유해한 대중매체에 대한 예방 교육 차원에서 시작되어, 정부 및 민간의 협력 하에 미디어 교육을 교과목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발전하고 정착해 왔다. 197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미디어교육 관련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교과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시행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호주의 미디어 교육은 방송통신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⁶⁰⁾의 주도로 시작되었고, 2015년부터는 온라인안전위원회(eSafety Commissioner)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호주 공영방송인 ABC(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는 2018년 처음으로 ‘미디어리터러시 주간(Media Literacy Week)’ 행사를 개최하여 전 연령층의 호주 국민들을 대상으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등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시작하였다. 호주는 디지털 미디어리터러시를 경제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이자 디지털 사회에서 잘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리터러시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특히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한 윤리와 가치 정립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²¹⁾

(7) 스페인의 미디어리터러시 사례

스페인의 팔마 팔미야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지역으로 전체 주민 가운데 25%는 로마 혈통이고, 20%는 이주민으로 특히 아프리카 마그레브 출신이 많다. 온다 콜로르(Onda

20) 앞의 각주 13)과 동일한 출처에서 참조하였음.

21) 앞의 각주와 동일한 출처에서 참조하였음.

Color)는 그 동네와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에 맞서기 위해 2008년에 설립되었다.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미디어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런 고정관념에 맞서는데 도움을 주었고, 마을 분위기도 개선해 내었다. 구체적인 훈련을 통해 주민들은 인터뷰하는 방법, 특정 주제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법 및 음향기기 사용법과 여타의 기술 장비 사용법을 배운다. 또한 강습회에 참여해서 공동체미디어가 무엇인지, 다른 미디어나 소셜 미디어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를 배운다.

온다 콜로르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사회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플랫폼이다.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단체로 바리오핀토(VARIOPINTO)나 사타(XATA) 사회문화협회 등이 있다. 바리오핀타는 지역적 연대 구조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여러 집단을 교육하고, 페미니즘과 평등, 국제협력 교육, 기능적 다양성 등 다양한 주제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라디오 사타의 경우에는 개인과 단체들이 주류의 상업적 방식을 넘어 디지털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오픈 소스와 오픈 코드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 및 지식을 진흥한다.²²⁾

(8) 아일랜드 미디어리터러시 사례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니어FM(Near FM)은 ‘어르신 상호문화 미디어교육’을 통해 다른 언어나 소수 민족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 거의 교류해 보지 않았던 50세 이상의 사람들을 상호문화적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참여시킨다. 니어FM은 미디어를 공동체 발전을 위한 도구로써 사용하는 민주적 비영리 미디어 협동조합인 ‘니어미디어협동조합’의 일부다. 1982년에 설립되었으며 600명이 넘는 주주와 120명 이상의 정규 자원활동가, 그리고 32명의 상근자가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는 ‘미디어리터러시 아일랜드 운영위원회’와 사업 및 자료 작업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다. ‘미디어리터러시 아일랜드’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되거나 관심이 있는 단체들의 네트워크다. 니어FM은 ‘스마트라디오교육’을 제공하는데, 공동체 라디오의 측면에서 시각 장애인이나 학습 장애인, 이주 여성들을 위한 라디오 교육처럼 특별한 목표 집단의 구체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²³⁾

22) 위의 각주 15) 와 동일한 책에서 참조하였음.

23) 위의 각주와 동일 출처에서 참조하였음

2)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국내 사례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각기 다른 목적하에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시민의 방송접근, 방송이용권 보장을 위한 광역시도별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운용하여 시청자의 방송참여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보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의해 인터넷 윤리교육과 사이버폭력 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의해 정보의 격차 해소와 과의존 해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통해 디지털 배움터를 운용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은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과 이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인프라를 통해 교육부와 함께 인공지능(AI)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신문법」은 언론 산업을 진흥하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신문 활용교육(Newspaper In Education: NIE)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최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²⁴⁾.

이러한 법제하에 따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지만, 언론진흥재단과 같이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미디어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기도 하며, 학교를 비롯하여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요청하는 단체나 기관들에게 강사를 파견하는 곳도 있다. 또는 해외 사례에서 봤듯이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사례도 있다.

24) 한국법학회_법학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96 | 호) 202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법제하에 대한 고찰」 이순덕

〈표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각 부처 법률 현황²⁵⁾

정부부처	근거법률	주요내용
방송통신위	방송법	-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한 미디어 교육 (90조의2)
방송통신위/ 과기부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을 위한 인터넷 교육 (11조)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 교육(41조)
과기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정보문화 교육(44조)- 정보격차 해소 교육 (50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교육(54조) - 지능정보사회 윤리 확립 교육(62조) - 지능정보기술·서비스 이용자 권익 보호 교육(6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 소프트웨어 교육(제2조 제9호) -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제32조) - 초·중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진흥(제33조)
문체부)	신문법	- 언론 산업 진흥 등을 위한 교육(제31조)
교육부	교육기본법	-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2조) - 평생교육 장려(10조)
	평생교육법	- 문자해독 교육(문해교육)(제2조 제3호)·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독능력을 포함한 사회적· 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 된 교육 프로그램 - 문해교육 실시(제39조)
	디지털기반 원격교육 활성화법	-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10조) 접근 및 활용, 이해 및 비판, 사회참여, 민주적 소통능력

25) 김슬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헌법적 의의와 법제화 방안에 대한 소고”, 언론과 법, 제22권 제1호, 2023, 131쪽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1) KMLE (한국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종합 정보 웹사이트)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통신부가 함께 하는 한국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종합 정보 웹사이트 KMLE(Korea Media Literacy Education)가 현재 운용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의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자료들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국에 60개의 미디어센터가 있다. 지역별로 서울 13개, 경기도 10개, 강원 5개, 인천 2개, 충북 4개, 충남 4개, 세종 1개, 대전 1개, 경북 1개, 경남 5개, 대구 5개, 울산 1개, 부산 1개, 전북 3개, 전남 1개, 광주 2개, 제주 1개가 있다. 서울은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노원마을미디어센터,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성북마을미디어센터, 영상미디어센터“미디어팩트”, 은평뉴타운도서관라이브러리, 충무로영상센터“오! 재미동”,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 미디어센터 관악, 중랑미디어센터,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불광천미디어센터가 있다. 경기도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고양영상미디어센터, 군포시미디어센터,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성남미디어센터, 수원미디어센터,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화성시미디어센터가 있다. 인천은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있다. 강원도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원주미디어센터“모두”, 화천생태영상센터, 폐광지역통합영상미디어센터가 있다. 인천은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와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있다. 충북은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옥천군영상미디어센터, 제천영상미디어센터“봄”, 청암미디어센터가 있다. 충남은 서산영상미디어센터, 서천군미디어센터기별포영화영화관,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비채”, 아산시영상미디어센터가 있다. 세종은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고, 대전은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다. 경북은 구미영상미디어센터가 있고, 경남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MBC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김해영상미디어센터, 양산미디어센터, 미디어센터내일이 있다. 대구는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대구시민미디어센터,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대구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있다. 울산은 울산시청미디어센터가 있고, 부산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다. 전북은 완주미디어센터,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재미”, 전주시민미디어센터“영시미”가 있다. 전남은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두드림”이 있고, 광주는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와 동구영상미디어센터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는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미디어센터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기관들 각각의 사례를 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방

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 교육부 산하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표 사례로 들고자 한다.

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전국 곳곳에 산하기관 미디어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미디어교육 전문지 「미디어리MEdiary」를 발간하고 있으며, 여기에다가는 관련 정보와 미디어교육의 사례 및 전문가 인터뷰를 내용으로 채우고 있다. 또한 지역 곳곳의 센터들은 지역에서 요청하는 미디어 교육을 위해 강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강사들에게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여기서 양성된 강사들은 다양한 미디어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한다. 유아에서 노인까지 전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운영으로 미디어 활용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 고도화 사업으로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면서 메타버스·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미디어를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허위정보나 사이버 폭력을 비롯하여 미디어 중독 같은 미디어 역기능 예방 교육도 하고 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미디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노인이나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과 도서·산간지역의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도 운영 중이다. 더불어 장애 청소년들이 미디어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미디어교육’지원도 하고 있다.

나. 한국언론진흥재단

1962년 사단법인 한국신문회관 설립으로 시작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인들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만이 아니라 지역 언론 지원사업이나 전 국민 미디어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미디어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도 하고 대학강좌를 지원하기도 한다.

전 국민 미디어리터러시 사업 중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사업은 미디어에 대한 분별력 있는 이용과 책임 있는 활용 역량 함양을 위해 전문 미디어 강사를 파견,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에 있는 유·초·중·고등학교이다. 미디어리터러시 아카

데미 또한 운영 중인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팩트체크 교실>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학교를 선정하고 교사를 연수한 다음 그 담당교사가 직접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지원 방식이다.

그 외 KPF 대학강좌 지원으로 뉴스와 미디어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대학(원) 강좌를 개설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강좌명이나 강좌내용이 미디어리터러시, 뉴스리터러시, 디지털 미디어리터러시와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원한다.

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과가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2021년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 계획에 따라 시작하였다. 기본계획 수립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2023.11.10.)와 2024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지원 계획(2024.09.30.)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다. 2025년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였다.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 육성을 비전으로 하여 첫째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미디어교육으로 주체적 시민 역량 강화, 둘째 보편적 미디어 교육 실현으로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감수성 함양, 셋째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미디어 교육 지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세웠다. 기존의 학교 중심의 미디어 교육에서 전문기관 협업을 통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원 연수 운영과 학교로 찾아가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실 운영으로 확대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그동안 진행해 온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활동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청소년 사회적 가치 실천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하거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안을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을 위해 교수 학습서로 배포하였고, 즐거운 미디어 생활을 위한 교육연계 미디어 교육 영상자료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2024년에는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기획하여 미디어교육 전문강사단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를 실천한 사례나, 시청자미디어재단 교육 사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전북교육청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지원단 교육사례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2. 경기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현황과 한계

1) 경기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현황

경기도는 학생들의 미디어 정보 이해력과 비판적 사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0년 7월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감이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원 연수, 교육자료 개발, 학교와 지역사회 프로그램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²⁶⁾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교사 연수 확대, 학생 참여형 미디어제작 활동 강화, 지역 미디어센터 및 공동체 미디어와의 협력 기반 구축 등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다. 해당 계획은 학교 현장에서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 미디어 정보 활용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격·온라인 학습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교육지원청·지역 사회를 연계한 프로그램 설계가 강조되었다.²⁷⁾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3월 미디어교육센터²⁸⁾를 설립하여 미디어 역량과 공동체성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학교 기반 미디어 교육 지원 및 교원 연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방송 스튜디오, 강의실, 동아리실, 화상회의실, 색보정 교육실, 입체영상교육실, 편집교육실, 입체음향교육실 등 다양한 특화 공간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학교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 미디어 자원을 연계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의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2025년 학교 미디어교육(학교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과 ‘2025년 미소드림 공유학교’가 있다. ‘2025년 학교 미디어교육(학교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은 미디어 문해 교육, 미디어 체험버스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 중이며 ‘2025년 미소드림 공유학교’는 ‘2025년 미소드림 공유학교(미소로-미디어 진로교육)’와 ‘202년 미소드림 공유학교(미소창-미디어 방송, 창업교육)’로 나뉘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6) 경기도교육청, 2020,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27) 경기도교육청, 2022, 「202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추진계획」

28)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https://www.goemec.kr/hmpg/main.do>

‘2025년 미소드림 공유학교(미소로-미디어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방송(뉴스)제작 교육,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되기, e-book(그림책) 제작 교육, 미디어 어드벤처, 미디어 콘텐츠 교육, AI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초등 3학년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지며, ‘2025년 미소드림 공유학교(미소창-미디어 방송, 창업교육)’은 창업 기본 교육, 창업 심화 교육(인공지능 활용 영화 제작하기, 팟캐스트에 대한 이해 및 제작하기)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교육명으로 추측해 본다면 읽고 쓸 수 있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 미디어 기술교육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025년 5월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에서 제출한 「2025 미디어·소통·드림[꿈] 한마당 운영 계획」을 보더라도 미디어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 직업 체험에 집중돼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를 다루는 기술적 역량을 넘어서 비판적 시각으로 미디어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어야 한다. 따라서 위의 교육은 경기도교육청의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와도 차이가 나는 미디어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학생을 정의하고 있어²⁹⁾ 경기도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지역 단위에서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공동체 라디오, 공공 액세스(Public Access) 미디어 기반의 시민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학생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 시민이 미디어제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³⁰⁾ 이러한 사업은 경기도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며,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미디어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29) 경기도교육청, 2020,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제2조 정의.

30) 시청자미디어센터, 「2025년 마을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공모」,
<https://ggmaeul.or.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52&boardNo=10045&type=&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80>

2) 경기도 조례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과의 연결성

경기도는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통해, 시민으로서의 권리·책임·참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들은 비판적 사고력, 공적 담론 참여, 민주주의 가치 이해, 정보 활용과 표현의 자유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성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 다음 표는 조례의 핵심 조항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과의 연계를 조항별로 해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1) 경기도 조례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연계

〈표 1〉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연계

구분	조례 조항(요약)	조항 해석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과의 연결성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2조(정의)—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	교육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 함양’에 두고 있음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가치인 비판적 사고, 참여적 시민성, 공적 담론 형성 능력의 제도적 근거로 활용 가능
	제3조(기본원칙) —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공공성, 접근성, 다양성을 원칙으로 함	민주주의 교육이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어야 함을 명시	지역 공동체 기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공공 액세스, 마을미디어 등)의 공공성 원리와 부합
	제6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 및 정책 책임성을 부여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 추진계획 수립 근거로 활용 가능 (예: 지역 미디어센터 연계, 시민 대상 프로그램 등)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제1조(목적) —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로	학교시민(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을 민주적	학생의 참여형 미디어 제작, 토론·비판 활동

구분	조례 조항(요약)	조항 해석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과의 연결성
조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의사결정 과정의 주체로 교육하는 것을 명시	등을 포함하는 미디어리터러시 수업 모델의 법적 정당성 확보
	제2조(정의) — 학교시민(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 모두가 민주시민 교육 대상	교육 대상을 학교 구성원 전체로 확장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대상을 교사·학생·학부모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제4조(기본원칙) — 민주주의 가치 계승, 논쟁의 공론화, 참여·토론 중심 교육, 보편적 접근성 보장	공론장과 참여, 비판적 사고 중심의 교육원칙을 명시	온라인 혐오, 가짜뉴스 대응, 공적 담론 형성 등 미디어리터러시의 ‘시민적 차원’을 강화할 수 있음
	제6조(기본계획 수립) — 교육감이 추진계획 수립, 기반 구축, 재원 확보 등 포함	교육행정의 체계적 실행 의무를 명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교육청 차원 계획 수립·예산 확보의 근거가 될 수 있음

(2) 해석 및 시사점

가. 법·제도적 기반 제공

두 조례는 모두 ‘비판적 사고력, 참여, 공공성, 지속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별도의 신생 정책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의 확장된 연장선으로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나. 교육 주체의 확대

특히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는 교사·학생·학부모·직원 모두를 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대상을 학교 구성원 전체로 확대하는 근거로 활용가능하다.

다. 정책적 연계 가능성

도지사 및 교육감의 기본계획 수립 조항(「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6조,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6조)은 향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중장기 계획 및 재정지원 체계에 포함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라. 교육 내용의 확장

‘논쟁의 공론화’, ‘참여·토론 중심 교육’ 원칙은 기술 중심의 미디어 활용 교육을 넘어, 혐오 표현,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와 책임 등 시민적 차원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설계와 잘 맞아 떨어진다.

3) 미디어리터러시 교육협력체 운영 사례

2022년 경기도교육청은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미디어리터러시(Media Literacy) 역량을 강화하고 올바른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운영한 교육협력체의 다양한 실천 사례들을 사례집으로 담았다.

(1) 운영 배경 및 필요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 교육협력체의 역할이다.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은 미디어를 통해 주로 정보를 얻고 학습하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학생들은 '미디어로 매개된 삶'을 살고 있음을 전제하며, 이에 따라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는 원격수업의 일상화와 디지털 사회에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문해력이 중요해졌으며, 교육공동체(학생, 교원)의 연구 및 실천 활동을 통해 디지털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협력체의 역할은 미디어의 비판적 이용부터 올바른 접근, 생산적 활용, 책임있고 안전한 공유 활동까지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천하는 선도적인 역할 수행이다.

(2) 주요 추진 내용 및 목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첫 번째, 교과 연계 및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미디어 인권, 의사소통, 팩트체크 등을 주제로 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했다(교육과정 중심 교육).

두 번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교과별 수업 활동 자료를 제작하고 수업 사례를 만들었다.(교실 수업 개선)

세 번째, 비판적 이해력을 키우는 청소년 팩트체크 대회 운영, 정보의 편파성을 인식하는 미디어 프로젝트 운영, 학생자치회 활동을 통한 미디어리터러시 캠페인 등 학생 주도의 활동이 이루어졌다.(학생 참여형 교육)

네 번째, 필터버블, 가짜뉴스 분별, 디지털 동조현상, 인포데믹, 정보의 편향성 판단, 미디어를 활용한 책임 있는 소통(선플 달기) 등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었다.(핵심 교육 주제)

(3) 운영 사례 구성

〈표3〉 운영 참여주체 및 사례

구분	주요 참여 주체	사례 예시
I	교육연구회	AI Media 교육연구회,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회 등
II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과 통합적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방안(광탄중), 미아미(금곡고) 등
III	학생동아리	SBC 미디어 리터러시 탐구반(신일중), 미리토론단(의정부부용초) 등
IV	교육과정 및 학교자율과정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당정중), 〈미디어 똑똑하게 사용하기〉 프로젝트(성남정자초) 등
V	학생자치회	북위 16° 미디어 탐구반(금정중), 안일초 학생자치회(안일초) 등

4) 경기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한계

경기도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은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노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지역 및 학교 간 격차가 교육 실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MIL³¹⁾ 협력 수업 연구에서 교사들이 미디어정보리터러시 협력 수업을 운영할 때 ‘수업 준비 부담’ 등의 차이를 호소하였는데, 이는 교사 전문성이나 시간·자원 여건이 충분치 않은 학교일수록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³²⁾ 또한 청소년 ICT 리터러시 연구에서는 학교 간 규모와 자원의 차이가 리터러시 역량의 격차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학교 규모가 작을수록 청소년의 ICT³³⁾ 리터러시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³⁴⁾

둘째, 교사들은 MIL 협력수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면서도 수업 차시가 늘어나거나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IL 협력 수업 활성화를 위해 교사 전문성 향상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³⁵⁾

셋째, 제도적·재정적 지속성의 취약성이다. 많은 프로그램이 공모사업 또는 단기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적·정규 교육 과정화로의 전환이 어렵고, 또한 예산 및 전담 인력 확보에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³⁶⁾

넷째, 교육 내용의 편중 문제이다. 공개된 사례집과 교육자료를 보면, 영상제작·편집 등 기술 습득 중심의 활동은 활발히 진행되는 반면, 혐오·차별 표현 대응, 인권 감수성, 시민적 담론 형성 등 비판적·시민성 관점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다섯째, 학교-지역사회 연계의 한계이다. 마을미디어 및 공동체 미디어와의 연계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적 연결고리가 부족하여 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충분히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31) MIL(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MIL은 유네스코(UNESCO)가 제시한 개념으로, 기존의 정보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합한 복합적인 역량. 정보를 접근, 평가, 사용, 조직하는 능력 +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메시지를 제작하는 능력(박주현, 임정훈 외, 2024).

32) 박주현, 임정훈 외(2024),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MIL) 협력수업 실태 분석」

33) ICT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약자로, ICT리터러시는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활용능력을 의미한다. ICT 리터러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된다(김지민, 2024).

34) 김지민(2024), 「청소년 ICT리터러시의 가정환경 및 학교 수준 영향요인 다층분석」

35) 박주현, 임정훈 외(2024)

36) 경기도교육청, 2022, 「202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추진계획」

3. 시민참여기반 미디어활동이 미디어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1) 언론 - 미디어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시민참여기반의 미디어 활동에는 신문 매체 활동과 방송 매체 활동의 2가지가 있다. 먼저 신문으로 하는 활동에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간하는 지역신문과 그보다는 협소한 마을을 중심으로 발간하는 마을신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신문으로 옥천신문과 마을신문의 수원의 '매탄신문', 그리고 안산의 고잔동마을신문을 다룬다. 그리고 방송 매체로는 공동체라디오들인 단원FM, 성서FM, 옥천FM을 중심으로 다룬다. 방송 매체 활동의 하나인 공동체라디오들 중에는 지역 언론과 함께 저널리즘 스쿨을 운영하거나, 혹은 라디오 제작 교육 과정을 통해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 사항을 시민들에게 교육하기도 한다. 이들의 주된 교육 내용 중의 하나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의 철저한 팩트체크와 함께 사실 근거에 입각한 콘텐츠 제작의 강조이다. 비록 그 규모는 작아도 이들 시민참여 미디어 활동 매체들은 적어도 새로 유입된 시민기자나 방송활동가를 위해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저널리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참여 저널리즘 스쿨이나 미디어제작 교육은 시민들이 미디어의 소비자(수용자)를 넘어 윤리적 책임감을 갖춘 생산자(제작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사실에 근거한 취재와 기사 쓰기, 방송 내용에 관한 정보의 출처 확인과 이슈에 관한 비판적 분석³⁷⁾을 통해 지역이나 마을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문제해결의 방향을 찾고자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민참여기반의 미디어 활동은 자연스럽게 윤리적 저널리즘에 입각하여 미디어제작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미디어 활동 자체가 미디어리터러시를 익히는 과정이 된다. 시민 누구나 공동체미디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미디어 제작 활동을 이어간다면 이들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은 강화될 것이다.

37)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 비판적 수용이다. 여러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정보들 중에서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는 어떤 것인지, 해당 정보 내용이 올바른지, 정보의 출처가 믿을만한 곳인지 등을 미디어의 소비자가 직접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정보의 생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디어의 윤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내가 생산해 내는 정보가 정말 정확한지 거듭 확인하여야 한다. 내가 믿고 시청해 온 방송이 거짓 정보를 담을 수도 있고, 내가 무심코 옮긴 가짜 뉴스에 나와 내 가족, 내 친구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소원·이수연·김혜영(2020), 『뉴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어떻게 읽고 어떻게 쓸 것인가』, 태학사, 12p.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기술적인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해내고, 성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김양은(2016), 『소셜미디어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70p

(1)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의 강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팩트 체크일 수밖에 없다.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왜곡된 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쉽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은 SNS를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단원FM공동체라디오는 지난 2024년 12월에 지역의 한 노인복지관으로부터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요청받은 바 있다. 단원FM이 진행했던 <성평등 미디어리터러시 시민강좌>를 안산시 홈페이지로부터 발견하고, 단원FM이 지역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는 유일한 단체여서 제안하게 되었다고 했다. 복지관 측에서는 사회 갈등의 요인 가운데 특히 노인 세대를 중심으로 퍼지는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구의 성서FM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마을신문 제작 활동을 통해 기사를 쓸 때 무엇을 믿고 어떤 것을 걸러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시민참여 미디어 활동 자체를 미디어리터러시에 관한 교육과정이 되도록 프로그램화 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들의 경우가 있는데요. 참여자들이 사회복지관에서 공부를 계속하시는 마을 기자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스마트폰 하는 것도 수업이 또 하나 있고 그런 영상 만드는 수업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정보 판별이 필요한 거예요.(...)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럼 왜 이걸 만드셔야 되고, 기사를 쓰는데 주위를 쳐다봐야 되고, 다 믿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하면서 기사도 쓰고 글도 쓰고 하셨어요.” (성서FM, 서현정)

경기도 수원의 마을신문인 매탄신문은 주민기자를 모집하고 주민기자단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마을신문의 의미와 주민기자의 역할, 기사 기획, 취재, 기사쓰기, 사진 찍기 등으로 진행된다. 주로 여성들이 주민기자단으로 활동하다 보니 아이들도 따라오게 되어 자연스레 어린이 기자단도 꾸려져서 운영되고 있다. 마을신문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을의 이야기를 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민감한 마을 의제를 다루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의견이 다른 양쪽 사람들에게 사실 확인을 다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려고 노력한다.

“민감한 사항들은 이제 확인을 하죠.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되니까. 다른 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쪽에서 주민들 생각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쓰기 때문에 그다지 뭐 사실이 아니라서 문제가 된 적은 없어요.”(매탄신문, 서지연 대표, 50대)

공동체라디오 방송활동가인 시민참여자들 또한 세대를 불문하고 방송진행에 있어서 발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한다. 시사문제나 사회적 의제를 포함하여 모든 방송에 있어 시민참여자들은 팩트 체크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그 출처를 살피는 행위 자체가 바로 미디어리터러시가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이다.

“내가 방송을 만들든 신문기사를 쓰든 누군가 이거 나 혼자 보는 일기라면 상관이 없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그걸 읽거나 본다면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하고, 사실에 입각한 글을 써야 하고, 방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연구하고 말을 하게 되니까 그 스스로가 자기 검열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당연히 미디어리터러시의 한 과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죠.”(고잔동 마을신문 기자, 얼쑤의 얼쑤 방송활동가, 얼쑤, 50대)

“이제 그전에는 명확하지 않았고 대충 알고 있어만 돼도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팩트 체크가 되죠. 만약에 숫자라면 정확한 숫자와 근거가 되는 자료를 팩트 체크 해요.”(단원FM 드라마천국 방송활동가, 윤작가, 50대)

“정치, 사회, 시사 같은 부분에 관심이 있는 편이라서 아무래도 그것과 관련된 주제들을 가져오는 대본을 어느 정도 준비하다 보면 일단은 팩트가 정확한지 보려고 하는 편이구요.”(단원FM, 아재쌀롱 방송활동가, 안토, 30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자 입장에서 미디어 교육에 대한 기대는 학생들이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내용들에 대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양질의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는 창의력도 발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를 사용할 때 사실과 의견은 구분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맞을까?’ 이렇게 한번 반문하는 것만도 미디어의 잘못된 의견이나 가짜 뉴스를 피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더 나아가간다면 건전하고 참신한 생각을 담을 수 있는 미디어를 창출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별망초 교장, 정성조)

학교에서 실시되는 미디어리터러시는 교사나 교장의 의지가 있어야 수업에 반영될 수 있다. 정성조 교장은 4학년에서 6학년까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단원FM과 연계하여

교실 안에서 실시한 바 있다. 정교장은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적어도 사실과 의견의 차이와 함께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능력을 갖추기를 원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창의적인 미디어 활동을 통한 콘텐츠 내용 분석 능력까지도 가지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러한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동아리 활동으로서 방송반 아이들을 위한 미디어제작 교육을 프로젝트에 포함시켰다. 콘솔 작동과 녹음 및 편집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과 함께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기반으로 대본쓰기가 가능하도록 라디오제작 교육을 요청하였다. 교육이 다 끝날 즈음에는 단원FM 방송국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 활동도 하고 게스트로 직접 출연하여 방송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미디어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이 미디어를 생산하는 주체로서 미디어를 보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라디오 제작교육 이전의 우리는 미디어를 소비하는 주체로서의 시각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직접 미디어를 생산하는 주체로서 아이들을 보면 자세와 태도의 변화가 확실하게 읽힙니다. 그런 면에서 미디어를 생산하는 주체로서의 미디어를 보는 시각은 변화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망초 교장, 정성조)

정성조 교장은 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를 설득하여 미디어제작 교육에 예산과 공간을 투자했다. 처음에는 빈 교실을 통해 운영되었던 학교 방송반은 단원FM과 교육을 진행한 이후 학교의 낡은 방송반을 방학 동안 리모델링을 했다. 그래서 지금은 방음시설과 방송실 장비가 완벽히 갖추어진 상태에서 아이들이 교내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의 공동체 미디어와 학교가 연계하여 활동함으로써 아이들이 미디어제작의 주 활동자로서 기술 역량과 콘텐츠 기획력을 갖추면서 스스로 대본을 작성하여 방송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도록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2) 언론·미디어에 관한 비판적 사고 역량 강화

옥천신문과 옥천FM공동체라디오는 지역의 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저널리즘 스쿨인 ‘송건호³⁸⁾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더불어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 가능한 청년대상 저널리즘 스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구의 성서FM 공동체라디오도 지역 언론인 ‘뉴스민’ 및 언론노조와 함께 지역의 청년 대상 커뮤니티 저널리즘 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저널리즘 스쿨은 교육과정 자체가 비판적 사고의 힘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데, 특히 참여자가 직

38) 지역 언론 옥천신문의 설립자로서 송건호재단이 있으며, 송건호재단이 옥천신문과 옥천FM공동체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접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활동에서 그 역량이 길러지게 된다. 즉 공식적으로 ‘미디어리터러시’과정으로 명명하지 않더라도 기사를 쓰는 과정 자체가 미디어리터러시가 녹아나는 과정인 것이다.

“회의를 할 때마다 이제 그런 언론 비평이나 언론 윤리나 아니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보도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매주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아직은 전문적인 기자가 되기 전 시민으로서 청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걸 다 겪고 나면(...) 이러한 것들이 녹아나는 기사를 쓰게 되는 거죠.”(옥천신문, 이현경)

또한 지역이나 마을의 의제를 다룰 때 균형 있는 이야기가 되도록 두루 살피거나 다른 의견들을 함께 들으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공동체미디어 활동을 하기 전 교육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지만, 직접 기사를 쓰고 방송제작을 하는 등의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기사를 작성하고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서 신문을 읽고 토론을 하면서 저널리즘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그리고 직접 취재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알게 되고 그 문제를 기사화하거나 방송으로 내보내게 된다.

“어쨌든 자기네들이 이런 형식 이런 어떤 계기와 매개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지역의 어떤 문제를 대면하기도 하는 그런 기회가 사실상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회들이 주어 진다는 그 자체로 우리가 어쨌든 지역 문제 해결을 걸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친구들도 지역문제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성서FM, 이경희)

“쓸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한 어떤 시각이나 관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지역 운동의 도구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게 라디오와 지역 신문입니다. 지역 언론이지요. KBS MBC는 절대로 못 해내요. 커뮤니티 저널리즘이니까. 미디어라는 말은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는 커뮤니티 저널리즘을 배워야 하는 거지요.”(옥천신문, 황민호 대표)

미디어 활동가들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어떻게 본인의 시각과 관점으로 신문 보도 내용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읽어내어 말하고 쓸 수 있도록 이끌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민이 반영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 옥천 신문과 옥천FM은 문해력이라는 리터러시에서 지역 언론 비평까지 나아가는 비판적 사고가 몸에 밸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언론의 지형은 이런 상황이고 청소년들의 문해력과 관련된 부분은 또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 고민들을 좀 해결해야 할 상황이 왔고,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지역 신문을 일단 제대로 읽고 그 내용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자기 생각을 다시 말할 수 있나 그리고 비평할 수 있나와 같은 프로그램을 론칭한 거였죠.”(옥천신문, 이현경)

옥천신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신문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교육은 단순히 매체의 기사에 대한 인상비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청소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그들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와 연관하여 이야기를 끌어내고자 한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글을 써야 자기도 쓰고 싶고, 생동감 있게 일단 본인 얘기부터 쓰는 게 되게 중요하고 거기서 조금씩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가령 엘리베이터는 왜 선생님들만 타느냐 그런 것부터 해서 점심 급식을 왜 3학년 먼저 먹느냐 같은(...) 근데 그런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게 청소년과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갖는 애정 자체가 달라져요. 이 얘기는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옥천신문, 이현경)

이러한 활동은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지켜보는 지역사회의 교사나 학부모의 변화도 가져온다. 그래서 신문을 읽은 후 이를 바탕으로 라디오 녹음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처음에는 별 호의적이지 않던 교사나 학부모들이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학교도 맨 처음부터 호의적이었던 건 아니고, 애들이 방과 후 이런저런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들의 변화가 눈에 보이니까 교사도 다른 시각이 생기고, 또 교사나 공무원 중에도 학부모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녀들과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더 호감도가 높아지는 그런 면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옥천FM, 이해수)

커뮤니티 저널리즘은 지역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 참여자들이 비판적 사고를 통해 지역 의제를 균형 있게 보면서도 언론에 실리는 기사나 방송 내용에 관해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시각이나 관점의 균형과 비판적 분석 능력은 공동체미디어 활동을 통한 기사 쓰거나 방송하기의 과정에서 습득된다. 청소년들의 삶과 지역사회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대하는 태도는 공동체미디어 활동을 통한 습득의 과정으로 현저히 좋아짐을 알 수 있다.

2) 혐오 표현과 차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시민참여기반의 미디어 활동들은 시민들이 본격적인 미디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일정 정도의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그 과정이 학교와 연계되는 저널리즘 스쿨의 경우에는 학기와 함께 지속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청년 중심의 저널리즘 스쿨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짧게 몇 달의 교육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마을신문이나 공동체라디오들은 대개 4회에서 10회차로 교육을 진행하며, 차시당 보통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을 통해 시민참여자들은 미디어 활동에 있어서 공익적 가치에 기반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인식을 갖게 된다.

(1) 혐오 표현과 차별 없는 미디어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8년 이주민방송 MWTV는 ‘인종차별을 예방하고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책자를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들에게 배포한 바 있다. 단원FM공동체라디오 역시 2024년 공식 개국은 2024년이었지만, 개국 전인 2022년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라디오제작교육을 실시하였고, 유튜브 채널로 방송 송출을 시작하면서부터 방송활동가들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공유하였다.

안산에는 전체 70만 인구 가운데 대략 15%에 달하는 10여만 명 이상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출신국도 약 110개국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다. 이러한 이유로 5년 전 안산시는 유럽평의회로부터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전국에서는 최초로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받았으며, 2025년에는 ‘상호문화도시조례’까지 제정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단원FM은 방송활동에도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한다. 워크숍이나 세미나, 송년모임 등을 함께함으로써 서로가 밀접하게 가까워지기도 한다.³⁹⁾ 이러한 도시에서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는 방송제작가이드라인을 방송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는 일은 필수일 수밖에 없다.

단원FM 공동체라디오는 또한 안산의 단원구 초지동에 위치한 별망초에서 2024년 지역과 학교가 연계하는 수업에 참여하면서 고학년인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각 반별

39) (천원석, 최운경, 정혜실, 2024) 작은 연구 <공동체미디어 활동이 공동체에 관한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라디오제작교육에서 네팔 이주민을 처음 보았어요. 이런 기회들이 서로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방송활동가, 상드 재인용)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했다. ‘1인 크리에이터 아무거나 해도 될까?’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수업에서는 유튜브의 미디어정책 가이드라인에 대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혐오표현과 차별적인 콘텐츠 제작을 하지 않아야 함을 알려주었다. 두 번째 수업은 ‘기자들은 언론 인권보도준칙을 왜 만들었을까’라는 주제로 진행하면서, 언론보도에서 지켜야 할 어린이 혐오 표현과 함께 차별적 표현이 없는 어린이 인권, 장애인 인권, 이주민 인권을 지키는 인권 옹호적인 보도에 대해 교육했다. 이 과정이 끝난 후 교사와 학부모에게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대체로 핸드폰 사용 시간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유튜브와 뉴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일상의 미디어리터러시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어떤 도구를 통해서 검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학교 내에서 핸드폰을 보는 행동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핸드폰 사용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가정에서도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학부모님들께 듣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나오는 말이나 행동, 뉴스에 대해서 반문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아직 드물기는 합니다.”(별망초 교장, 정성조)

별망초는 2023부터 단원FM과 함께 학교 방송반 제작교육과 운영 그리고 공개방송을 진행 해오고 있다. 방송반을 처음 모집할 때는 주로 학생자치회 소속 아이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2024년 공개방송이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후에는 지원자가 많아 그중에서 선별하여 뽑게 되었다. 이후 2025년에는 방송 제작에 관해 선배들로부터 기술 교육을 일정 정도 받게 한 후 공동체라디오 이해 교육과 방송기획, 대본쓰기 등을 다시 공부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방송반 아이들과 함께 ‘별망초 방송반 제작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어 내부에 붙이기도 했다. 여기에는 방송 시간 준수와 방송에서 주의해야 할 언어, 그리고 제작회의 과정에서 서로 존중하기 등등 아이들이 스스로 제안한 가이드라인 10가지를 선정하여 합의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와 같은 공동체미디어들의 활동은 시민들로 하여금 일상에서도 미디어리터러시를 통해 기존의 언론보도나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만이 아니라 직접 제작에 참여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학습하도록 이끈다.

(2)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에 대한 감각 깨우기

한국 사회의 대다수 성인들은 불행하게도 가부장제적인 사회질서와 함께 독재정권 아래

에서 위계화되고 보수적인 권위에 대해 무조건적 복종심을 내면화하면서 성장해 왔다. 비록 민주화운동을 경험하였다고 해도 여전히 기존의 가치 질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쉽게 드러내곤 한다.

“어른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기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기 힘든데 방송을 만들면서 스스로 조금씩 변화하게 되지요. 소비의 주체에서 생산의 주체로, 소비자 즉 프로슈머라고 하잖아요.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당신들에게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주지만 그 안에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조금 보여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성서FM, 서현정)

미디어제작에 참여하여 콘텐츠를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참여자들은 이처럼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회문화적으로 습득된 과거의 잘못된 경험들이 콘텐츠의 내용에 담길 수도 있음을 의식하게 된다.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영상을 카메라에 담을 때 의도하지 않은 내용으로 전달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교사, 안은정)

종종 공동체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함께 출연하는 초대 손님이나 고정패널이 방송 중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을 드러내거나 혹은 인종적 편견이 담긴 차별적인 발언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미디어교육을 받고 지속적으로 미디어 제작을 진행해 온 방송활동가라면 라이브 방송이 아닌 경우, 녹음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 발언을 잘라냄으로써 걸러내기도 한다. 이는 청취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미디어제작 경험을 통해 미디어리터러시가 몸에 스며든 진행자가 스스로 이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근데 그 삶의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소수에 대한 감수성들이 조금 떨어지는 면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저번에 칠드런스 트레인(영화) 같은 경우도 Y선생님이 자기네 성당의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를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본 이야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과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여과 없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내가 이제 제지를 하고 한 경우는 있었죠. 그런 부분들은 뒤에 좀 날리고 그랬죠.”(단원FM 드라마천국, 윤작가, 50대)

이렇듯 시민 참여자들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받거나 미디어제작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예전과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단원FM에서 진행했던 미디어리터러시 시

민강좌와 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중증장애인권리중심형공공일자리로 유튜브 제작 활동 경험을 한 장애 당사자인 한 시민 참여자는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단어를 많이 보게 되었어요. 방송에서의 단어 하나하나를 보게 되고 누구에게 혹시 상처인 단어가 있는지 확인하게 되었죠. 장애당사자 입장에서 장애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미디어리터러시교육 및 유튜브제작 활동 참여자, 기봉설, 50대)

장애 당사자로서 장애인의 차별 문제에는 민감했지만 사회적 약자인 다른 소수자들에게 대해서는 둔감했던 자신을 의식하게 되었고, 특히 미디어가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에 관해 감각하게 되었다. 이처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과 미디어 제작 활동에 참여한 경험은 그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다른 방송활동가는 방송 제작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내용에 대한 점점은 필수라고 말한다. 성소수자도 하나의 정체성이 아닌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장애인에 대한 호칭도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에는 장애인 대비 일반인 혹은 정상인으로 부르던 호칭이 이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바뀌어 부르게 되는 등 방송활동가들은 정상성의 기준이 달라졌음을 인지하고 이런 부분에 더 유의해야만 하게 된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체크를 필히 해야된다는 것. 교육을 통한 어떤 변화가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성소수자다. 옛날에는 그냥 호모 맞아 이렇게 통 쳤는데 이제는 성소수자도 종류가 많다는 걸 알고 그 스펙트럼 별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떨 때는 어떻게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깊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있는 걸 애들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어린이를 ‘요린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요즘은 농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농아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왜 두 번씩이나 이런 식으로 부르는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장애인과 정상인이나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리고 코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코다’도 알게 되고, 영화가 나와서 알게 된 사람들이 많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드라마천국 방송진행자, 윤작가, 50대)

과거에는 자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지만 라디오를 녹음하게 되면서 단어 선택이나 호칭을 조심스럽게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단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립이 좀 많이 됐지 하기 위해서 미디어제작을 하고 녹음을 할 때 단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감해졌지. 이왕이면 그들이 원하는 호칭을 해주는 게 좋고, 잘못된 호칭은 왜 잘못됐는지 알려주고……. 용어를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죠.” (드라마천국 방송진행자, 윤작가, 50대)

성평등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참여자였던 한 시민은 미디어가 사회적 소수자를 어떻게 재현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면서 미디어의 표현 양태를 보다 민감하게 주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교육을 통해 미디어 속에서 소외되거나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여성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존중해야 한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사회적 약자(장애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이슈가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다뤄지는지 더 세밀하고 민감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문제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단원FM 낭독극 방송활동가이자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참여자, 양석화 50대)

요즘 십대 청소년 남학생들의 여성 혐오와 성차별적 발언에 대해 학부모나 교사로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스마트폰 사용과 게임 이용 시간, 유튜브 시청 시간이 높은 청소년들은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이야기들에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으며 악성댓글 다는 것을 일종의 유희로 여기기도 한다. 성평등 관점에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받았던 한 아이의 아버지는 십대와의 대화 자체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사고 자체가 너무 편향적으로 흐르고 있달까. 특히 남자아이들이 아까 말했듯이 안티페미니즘이라든지. 거의 대화가 안 되는 수준으로까지 가고 있고, 딸 이야기 들어보면 만연한 혐오표현이 있고. 중2 때부터 지금 중3까지 들어보면 너무 심각한 문제다. 밈이나 유튜브를 통해 아이들이 그런 혐오표현을 일찍부터 접하고, 요즘 기사들을 보니까 학교에서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 몸 사리느라고 내버려 두고 있고”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참여자, 이정인, 50대)

청소년들을 둘러싼 미디어 환경은 문제가 많고, 너무 심각한 상태이지만 이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할 학교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제대로 교육을 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기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은 더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교육의 효과성은 미디어제작에 참여할 때 더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이었으면 좋겠다. 형식적인 교육은 있지만 효과가 없으니,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교사나 파견교사는 효과가 없다고 본다. 학교에서 교사가 미디어를 다루는 기술 습득은 학생들을 따라갈 수 없다. 유튜브 금지가 학교에서 법으로까지 규제되지만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것이 요즘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창작자로서 매체 만드는 것을 저작권이라든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해보는 것이 좋다고 본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참여자, 이정인, 50대)

더구나 AI 인공지능의 기술로 인해 온라인에서의 딥페이크 문제나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여성 혐오와 더불어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가짜 영상제작 유포 등의 문제에 대해 십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AI 사용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청소년들에게 AI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선한 곳에도 쓸 수 있음을 알려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은지에 대해 질문을 미디어교육에 배치하는 것이다.

“AI 시대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만들어진 것들을 믿으면 안 된다. 하지만 딥페이크라는 자체를 그냥 우리가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사용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다시 복원하거나 그리고 독립운동가가 뭘 이렇게 이야기해서 얼굴을 보여주거나 그리고 잃어버린 친구들을 얼굴을 복원해 가지고 실제로 이 정도 나이가 될 거라는 것이 몽타주가 아니라 실제로 딥페이크로 활용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면 그럼 이렇게 똑같은 것이더라도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따라 다르고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너네는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할래? 너희들이 지금 계엄을 하고 히히거리고 뒷담화를 할 때 누군가는 이런 선한 것을 만들어서 공익적인 것에 써! 그럼 너희들은 뭐 할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학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성서FM, 서현정)

청소년들에게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공익적 가치 실현과 선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대안을 찾는 교육으로써 인문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단지 이러한 교육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가지고 직접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더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콘텐츠들을 더 만들어 지나간다면, 그 앞에 그런 것들이 선행되고 4차시든 8차시가 되든 기본적으로 이런 수업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만들겠죠.”

(성서FM, 서현정)

그런데 딥페이크 문제 같은 경우는 청소년만의 문제를 넘어 그보다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에게도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져야만 한다.

“1학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재미있게 놀이를 통해서 좀 해야 하고, 3학년 4학년 정도가 제일 잘 먹히고, 5학년 6학년은 잘라가지고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는 딥페이크나 성적인 문화와 관련해서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전달하죠. 선생님들 사진을 찍거나 이런 것들이 다 10대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떤 게 잘못된지는 건지, 장난인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게 처벌이 되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죠. 말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 번호를 가르쳐줘서 내가 전화할 수 있다는 것도 알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수업을 3년 넘게 하고 있죠. 딥페이크는 올해 거의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성서FM, 서현정)

전술한 바와 같이 2024년 ‘우리미래학교’라는 프로젝트로 단원FM과 협력하여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했던 별망초도 요즘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영상에 자주 노출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작한 것이었다.

“요즘 학생들은 유튜브랑 SNS에 너무 노출되어 자기의 판단력보다는 주변 친구나 유명 유튜브 진행자의 의견에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 비하, 혐오, 폭력적인 언어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년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우리 학교에서는 5-6학년 고학년이 문제적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어 고학년을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별망초 교장, 정성조)

3) 공동체 감수성으로서 포용, 소통, 공감 능력의 향상

지역사회 안에서 공동체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미디어에 대한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의 하나가 미디어가 가진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소통’이라는 측면이다. 즉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상호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연결되어 오고 갈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은 일방적일 수 없기에 타인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포용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시민참여기반의 공동체미디어들은 참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엇보다 공동체 이해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진행한다. 이웃하고 살고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서로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료와 이웃으로서 공존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서FM 공동체라디오에서 활동하는 미디어

교육 전문 강사가 대구지역과 인근 지역을 다니며 아이들과 미디어 교육을 할 때 소통을 강조하는 이유다.

“미디어가 무엇인지 진행하면서 미디어 역사도 이야기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을 담아서 생각을 소통하는 도구인데 그러면 이걸 그대로 다 믿어야 될까, 그래서 왜 만들어야 될까라는, 그게 제작 단계에서는 왜 만들어야 될까, 그럼 이 안에 내가 무엇을 넣어야 하지, 내 생각을 어떻게 내가 넣어서 표현하더라는 것이 시작돼야 미디어 만드는 게 시작될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가 내 주변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내 주변에 어떤 이야기를 전하지 그러면서 스스로 그 체험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넣고 빼고를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성서FM, 서현정).

옥천신문과 옥천FM의 활동가들은 저널리즘 스쿨에서 청소년들과 활동하며 미디어리터러시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며, 이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행위이며 이것이 가능해야 비로소 민주적인 사회가 가능하다고 인식한다.

“저희가 미디어리터러시를 해야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소통하고,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고 그게 민주 사회고 이런 것이라 연결되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나온 프로그램이 아니라 고민이 엄청 많이 저희도 했던 상황 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옥천신문, 이현정)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신문에 얘기하면 어쨌든 기사가 나오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을 다 지역 주민으로서 체감을 하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고 당연히 지역주민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뭔가 이런 활동을 할 때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청소년들도 매주 이제 신문 읽고 본인들이 얘기한 거를 방송으로 만들어낸다는 게 지역에 자기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곤 걸 알잖아요.”(옥천FM, 이해수)

안산의 고등학교 교사 또한 자신의 영상 미디어 제작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 가운데 하나가 참여자들이 서로 가진 생각을 소통하고 각자의 영상 작품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줌으로써 서로를 배려할 때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의 생각이나 작품에 대한 가치의 인정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기본적인 인식으로 자리매김하여야 서로를 배려하고 ‘같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교사, 안은정)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은 저는 유아 때부터 정말 유아에 맞추므로, 생애주기에 맞추어서 교육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비판적 사고는 아동기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어느 날 갑자기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유아 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비판적으로 어떤 사회를 바라보고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키워주면 좋겠다 싶어요. 그게 우리 시민사회에 이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단원FM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참여자, 강경의, 60대)

안산의 고잔동이라는 동네에서 마을신문을 만들어 온 시민기자는 동네 사람으로 살아가는 소속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을신문 활동의 역할이 주요했다고 말한다. 당시 고잔동은 타 지역에서 이주해온 주민이 90% 이상의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언제든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했기에 마을신문 활동을 통해 이들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애썼던 것이다.

“정주의식도 없는 안산에서 동네를 스쳐 지나가는 동네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동네, 살고 있는 동네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마을 시민들이 많이 필요했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지요.”
(전 고잔동마을신문 시민기자, 현재 단원FM 방송활동가, 윤작가)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역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생기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민들로 하여금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게 한 계기가 공동체미디어 활동이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디어제작을 직접 해보면서 삶의 키워드를 찾게 되었고, '함께 성장하고 시너지를 주고받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가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원FM 낭독극 방송활동가이자 미디어교육 참여자, 양석화, 50대)

4) 시민 주체로서 공론장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실천

공동체미디어 활동은 아동에서부터 노년까지의 모든 세대가 미디어에 접근하게 할 수 있다. 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은 특히 노년의 활동가들이 글을 쓰는 어려움을 넘어 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일부터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기 위해 애쓴다. 공론장인 마을신문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일은 시민 누구나 담론 형성에 기여할 기회를 줌으로써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제 내가 하면서 그걸 많이 바꿨지. 그러니까 마을신문은 아무나 해도 되는 거다. 아무나 글 써도 되는 거니까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자. (...) 본인 글이 활자화된 것에 대해 굉장히 신기해하고 뿌듯해하고... 거기 어르신 한 분은 자기 코너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기가 쓰는 거. 자기 코너 달라고 할 정도로... 그 글쓰기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쓰기에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다가 문턱이 좀 많이 낮아지고.”(고잔동 마을신문, 윤작가)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아 온전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 그렇다 보니 청소년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으며, 청소년의 의견은 어른들에 의해서 대리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왔다. 여기에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청소년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원인의 하나였다.

“저희도 청소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좀 많은데, 청소년도 어쨌든 시민의 한 사람인데 약간 미성숙한 존재로 비춰지거나 본인의 목소리가 좀 배제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옥천FM, 이해수)

국가인권위원회는 만 18세 선거권에 관한 법안을 국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서 청소년도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⁴⁰⁾ 이후 이에 대한 법 제정이 이루어져서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투표가 가능해졌으며⁴¹⁾ 민주시민이 갖는 권리로서 투표를 통해 본인들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목소리를 무조건 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민주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널리즘 스쿨에서는 청소년들이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 다 같이 책임이 있어. 어떤 책임? 열심히 정보를 보고 제대로 보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은 너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네가 자동차를 만드는 일을 하든, 언론인이 되든, 장사를 하든 그 책임들을 가르치는 게 미디어 교육이지, 제 후배 기자나 PD를 키우는 교육이 절대로 아니에요.”(옥천신문, 이현경)

40) 강민진, 2019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저널 열린생각
<https://www.humanrights.go.kr/webzine/webzineListAndDetail?issueNo=7604359&boardNo=7604350>

41)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만 18세부터 유권자가 되었다.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이 확대되었음을 환영한다는 국가위원회의 입장이 나온 것이다.
 국가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학부모 입장에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참여하였던 한 시민은 요즘의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심각한 편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그리고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무엇보다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보고 개입하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보고 개입하는 것으로 그것 자체가 의식화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다. 지금은 극우 편향성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때문에 바로 잡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 사람들이 지금 심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고 있다고 본다. 중학교 고등학생이 너무 심각하다. 부모가 우파든 진보적이든 가난하든 잘살든 자사고든 특목고든 심지어 대안학교를 다니든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면 상관없이 심각하다고 본다. 가장 큰 매체 영향은 유튜브라고 본다. 첫째만 해도 TV를 봤으나, 둘째는 유튜브만 본다. 집에서 TV를 안 본 지 꽤 오래 되었다.”(미디어리터러시교육 참여자, 이정인, 50대)

저널리즘 스쿨에서 활동하는 기자는 청소년들이 기사들을 읽고, 쓰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단지 기자로서의 역량만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 또한 키운다고 본다. 이는 그 안에 청소년들이 비판적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리터러시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저는 읽고, 쓰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들이 꼭 기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중 하나가 비판적인 사고인데,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을까”(옥천신문, 이현경)

저널리즘 스쿨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신들의 문제를 정책에 담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들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그동안 듣고, 읽고, 쓰고, 모여서 토론하고 논의하며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통하여 당당한 민주시민으로서 선거제도 안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이 성장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 활동으로 말미암아 앞서 말한 청소년의 투표권 부여에 관해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이 자신들의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전인하기도 한 것이다.

“옥천의 청소년 기자단은 청소년 참정권을 주제로 기획취재를 진행하며, 군수 및 교육감 후보들에게 직접 청소년 정책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 보도했습니다. 나아가 정책을 기반으로 모의선거까지 실시하며,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실제 한 후보자가 청소년 투표권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옥천신문, 이현경)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는 자신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장이 형성되어야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민주시민의 역량도 갖추어야 한다. 미디어는 그런 의미에서 유용한 도구이다.

중증장애인권리중심형공공일자리를 통해 지역의 장애인 이동권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단원FM에서 유튜브 영상제작을 했던 장애인 당사자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미디어에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오로지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미디어리터러시교육 및 미디어제작참여, 기봉설, 50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미디어 활동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지역의 의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이를 기사화해서 내보내는 마을신문은 공동체의 일원인 시민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인지하게 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다른 입장들을 균형 있게 다루어 준다.

“시민들의 공론장 역할을 하고 있죠. 매탄 권선역이 생길 때 지반이 흔들려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여기 새터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분들이 집이 갈라지고 막 이러는데, 도로공사에서 일부 몇 채 정도만 매입을 하고, 이분들한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동사무소 앞에 와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하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 공론장을 만들 힘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만, 그분들이 그렇게 할 때 그분들은 왜 그러냐, 어떤 것이 문제일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나 하는 것에 대해 양쪽 입장을 들어보고,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마을 신문에 신고하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도 같이 알아나간 거죠.”(매탄신문, 서지연 대표)

마을신문이 공론장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매탄신문은 자신들의 지역 시의원 후보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토론회를 열기도 한다. 단지 투표권만을 행사하는 시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들을 직접 검증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시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시의원이 된다는 것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는 일이며, 시민의 목소리를 열심히 들어야 가능한 일이라면, 지역의 공동체미디어들이 여는 공론장 안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때 공동체미디어가 등록된 공식 언론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당하지 않도록 지역의 언론과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

“수원 매탄마을신문은 유권자들이 시의원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직접 후보자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의 불참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지 등 외부 압력이 있었지만, 다른 언론사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토론회를 강행하며 공론장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토론회 이후 주민들로부터 “마을신문들은 이런 걸 해야지”라는 격려를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매탄신문, 서지연 대표)

시민들은 공동체미디어인 마을신문의 이러한 노력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지역의 공동체미디어들은 기존의 레저시 미디어들이 중앙정치에 집중하거나 수도권 중심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 시의원 후보에 대해 관심을 갖기 어렵고, 또한 시의원들 역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 지역의 공동체미디어들이 만들어 놓은 공론장 안에서 정책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때 후보자들도 시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낮은 곳에서 말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도 이러한 미디어 활동에 참여할 때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는 것과 아울러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Ⅲ. 결론 및 제언

: 시민참여 기반의 미디어리터러시 시민 역량 강화 방안 및 제언

1. 선행 사례 파악을 통해 파악한 시사점

한국사회가 계엄령선포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자발적 공론장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다른 면에서 사회 갈등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채 여전히 분열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언론과 미디어들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디어의 다변화가 불러온 저널리즘에 대한 관점과 인식의 변화가 과거 레거시 미디어들이 누렸던 영향력을 감소시키면서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언론의 지형도 바뀌었다. 뉴스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이라는 정형화된 방식으로는 더이상 시민들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이에 따른 다양한 요구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보다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넘쳐나는 다양한 매체들이 쏟아내는 콘텐츠들 속에서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으로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1) 해외 사례

본 연구는 이러한 시민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강화가 시민참여기반 공동체미디어 활동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지역 커뮤니티의 표현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방송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오픈 소스와 오픈코드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과 지식을 진흥한다. 교육이 끝나면 시민 누구나 FM과 웹라디오 또는 팟캐스트 등과 같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송출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두 번째, 지역 미디어와 학교 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유대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교육을 수행하는 공동체미디어와 같은 비영리단체들을 위해 기업과 민간 재단의 비용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다.

세 번째, 지역적 연대구조가 성장할 수 있도록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내용에 페미니즘이나 평등, 국제협력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킴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과 더불어 극우화나 성차별로 인해 사회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교육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소수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육의 장은 시민들에게 인종과 젠더 등 고정관념에 맞서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상호문화가 가능하게 하여 지역의 커뮤니티를 바꾸어 내는 시민의 공론장이 되고 있다.

2) 국내 사례

한국 사회 또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통신부 등이 이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인 공동체미디어들도 이에 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를 실행하는 여러 미디어센터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60개가 넘는 미디어센터를 세우고 지원하면서 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미디어제작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을 기르도록 돕고 있다. 또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사회적 소수자인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과 도서·산간 지역의 시민들의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시청자미디어재단이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경우, 각각의 기관들은 미디어교육 강사 자격증 제도를 통해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필요시 초·중·고등학교의 요청에 따라 강사들을 파견하고 있으며, 교사 연수도 실시함으로써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셋째, 교육부 산하 교육청들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것

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교과과정 안에서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 육성을 비전으로 하여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미디어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자료를 비롯하여 미디어리터시의 최근 경향이나 교육의 성과 및 변화를 담은 저널들을 제작하여 온라인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와 저널들은 강의자료로 활용하기에도 용이하며, 미처 파악하지 못한 국내 및 해외 사례를 통해 최신의 미디어리터러시 정보를 습득할 수도 있다.

3) 경기도 사례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본 사례는 경기도의 사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 내 시민들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 번째, 미디어리터러시와 연관된 각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제도적 기반의 제공과 함께 정책적 연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재정 지원 체계에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포함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교과 연계 및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미디어 인권, 의사소통, 팩트 체크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 참여형 교육으로 비판적 이해력, 정보의 편파성과 편향성, 필터버블, 가짜뉴스 판별, 디지털 동조현상, 인포데믹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미디어를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하도록 하는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와같이 경기도는 조례 제정과 추진 계획 수립, 지역의 공모사업 등을 통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제도화하려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다만 이들 대부분이 학교 중심의 교육에

치중되어 있어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지역 및 학교 간 격차의 문제, 둘째 교사들의 수업 시간과 준비에 대한 부담감, 셋째 예산과 전담 인력의 확보의 어려움, 넷째 기술 습득 중심에 치중된 활동, 마지막으로 학교와 지역 사회의 연계가 잘되지 않아 미디어 활동의 지속성에 어려움 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사실상 앞서 한계로 지적된 부분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동체 미디어 교육은 그러니까 제작 활동이든 아니면 그 단체 공동체 생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계속 장기적으로 직접 제작을 하면서 받는 피드백들과 거기서 나오는 경험들과 이런 걸 통해서 더 생생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미디어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 기술이나 아니면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도와 효과를 가지고 있는 미디어 교육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독립미디어 연구소 공동대표, 김지현 박사)

2. 시민참여기반의 미디어 활동의 의의

지역사회 곳곳에는 시민참여 기반의 공동체미디어들이 있으며, 이들은 공동체라디오, 마을미디어, 마을신문 등의 범주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지역의 미디어 활동 단체들은 앞선 해외 사례들과 국내 사례에서 보듯이 시민들의 미디어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시민 누구나 제작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 역량 교육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디어별 콘텐츠를 제작하여 송출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적인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현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참여 기반의 미디어 활동이 어떻게 시민들로 하여금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강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민참여 기반의 공동체미디어 활동은 기본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팩트 체크와 비판적 사고를 통해 언론과 콘텐츠에 관한 비판적 분석 역량을 강화시킨다. 시민들은 미디어 생산자로서 기사의 취재와 작성, 방송의 기획에서부터 대본 작성 및 송출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미디어 생산자로서 미디어 활동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제작한 콘텐츠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파악해야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며, 기존 언론이나 미디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가능한 활동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은 하루아침에 갖추어

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미디어 활동을 통해 채워가야만 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미디어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민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교육을 제공하며, 미디어를 직접 다룰 수 있으면서도 그들이 제작한 콘텐츠가 공식적인 채널이나 지면을 통해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미디어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시민참여 기반의 공동체미디어 활동은 공동체의 일원인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 표현과 차별 문제에 대해 감각을 민감하게 깨우고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활동이다. 미디어제작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된 미디어제작과정에 참여하거나 저널리즘 스쿨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이는 그들이 참여하는 미디어가 방송이라면 방송법이나 방송심의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고, 라디오의 경우에는 설령 정부로부터 정식 주파수를 부여받은 공식 FM 채널이 아니더라도 미디어제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책에 따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공동체미디어들은 자체적으로 미디어제작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윤리적인 저널리즘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도 하고, 미디어 생산자로서의 책무성을 갖추기도 한다. 시민참여 공동체미디어 활동은 이름 그대로 공동체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기에 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노력들로 인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혐오 표현과 차별의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게 만든다.

세 번째, 시민참여 기반의 공동체미디어 활동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포용과 소통 그리고 공감 능력을 향상시킨다. 시민의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진입장벽을 없애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제들이 시민들간 입장 차이로 인해 문제가 될 때 균형 있는 시민들의 의견 청취와 취재를 통해 시민들 사이에 소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감대를 넓혀 가려고 한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자들은 평소 관심을 두지 않던 지역 문제를 자신의 삶의 문제와 연결 지어 생각하고 활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동체미디어 활동은 지역 커뮤니티를 두루두루 살피는 일에서 시작되는 포용과 소통 및 공감의 장인 것이다.

네 번째, 시민참여 기반의 공동체미디어활동은 시민주체들로 하여금 공론장에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청소년의 권리를 비롯하여 장

애인의 권리, 지역주민으로서의 권리, 이주민의 권리 등 다양한 지역 의제들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어 미디어를 제작하거나, 기사를 쓰기 위해 질문할 힘을 키우고 비판적 사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변화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단지 불평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문제를 파악하며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을 확인하면서 방송 송출이든 지면이든 자신의 생각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본 연구가 국내외 사례를 비롯하여 경기도 사례와 함께 시민참여 기반의 공동체미디어 활동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모든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은 시민의 미디어 접근권이 확장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으로 연결되는 이유다.

둘째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은 시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장에 참여하기를 독려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론장 참여의 전제조건은 사실에 근거한 논의의 전개와 제시된 발언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하는 역량이며, 포용과 소통 그리고 공감의 능력이다.

셋째는 지역 커뮤니티의 변화를 가져오는 솔루션 커뮤니티 저널리즘 즉 문제 해결과 변화를 추동하는 미디어 활동이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혐오표현과 차별을 걸러내는 미디어리터러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은 지역사회와 공적 기관의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활동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법률이나 조례 제정만으로는 실행될 수가 없으며, 예산지원을 통해 실행이 가능하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예산의 지원도 충분할 때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본 연구를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이 경기도민을 위한 시민참여 기반의 공동체미디어 활동에 있어서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 경기도 내 28개의 시와 3개의 군에 공동체미디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미디어 활동의 경기도 내 시·군별 편차가 너무 크다. 본 연구를 진행한 단원FM은 안산에서 공동체미디어 활동을 하는 유일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그런데 안산시로부터 공동체미디어인 단원FM공동체라디오에 관한 예산지원은 전무하다. 이는 지자체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여 공동체의 범주를 작은 동 단위 지역으로 한정하거나 공동체의 활동 부분에서 미디어를 덜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공동체미디어 활동은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 뿐 아니라 시민의 공론장으로서 역할로 충분한 의견 수렴의 장이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민주시민사회에서 공론화와 투명성, 개방성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미디어 활동으로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시민들 간의 이해를 통한 포용과 상호 소통이 가능해짐으로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역사회로 만들어줄 것이다.

두 번째,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내 교육청과 학교는 자격증을 중심으로 한 강사 파견이나 교사에게 일임하는 미디어 교육이 아니라 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의 공동체미디어와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저널리즘 스쿨이나 방송반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에 반영해야 된다고 본다. 경기도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 중심의 미디어 교육이 지역기관과 연계를 맺는다 해도 강사 파견을 통한 기술 역량 중심 교육이거나 제한된 강의 방식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수업 부담을 줄이면서도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 이후 미디어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역의 공동체미디어 활동이 학교와 지역사회와 서로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미디어 활동이 지속되기 위한 재정지원으로서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있어야 한다. 우선 제도적 뒷받침으로 법률적 근거를 갖기 위한 경기도에서 '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근거의 마련으로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례제정과 더불어 기존의 조례들과의 연계를 통해 공동체미디어가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뿐 아니라 일상적인 미디어리터러시 활동이 가능한 미디어 활동의 시민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 기반의 공동체미디어 활동을 경기도 공익 활동의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매년 공익 활동의 성과보고 자리에서 경기도의 공익적 가치 실현 척도로 공동체미디어 활동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의 공공기관과 지역의 공동체미디어 활동이 연계하여 활동한 성과들을 알리고 공유하는 포럼이나 수상의 자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문헌자료

- 김양은(2016), 『소셜미디어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 더글러스 켈너·제프 셰어(2022),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가이드』, 여은호·원숙경 옮김, 살림터
- 마루티나 채프먼·나디아 벨라다·헬무트 페이슬(2020), 『모두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유럽평의회,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박선미(2025), 『생성형 AI와 미디어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 손희정(2024), 「디지털 시대 고어 남성성의 등장」, 『디지털시대의 페미니즘』, 한국여성학회기획, 한겨레출판
- 정용복(2024), 『AI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커뮤니케이션북스
- 오찬호(2025) 『납작한 말들』, 어크로스
- 유서연(2021), 『시각의 폭력』, 동녘
- 장소원·이수연·김혜영(2020), 『뉴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어떻게 읽고 어떻게 쓸 것인가』, 태학사
- 유네스코(2022), 유네스코 정책 시리즈, 『공동체 방송 지속가능성』, 최세진 역, 박채은 감수,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조수선·이숙정 외(2021), 『뉴미디어 뉴커뮤니케이션』, 이화출판

웹사이트

- <https://www.yna.co.kr> 연합뉴스
- <https://news.kbs.co.kr> KBS뉴스
- <https://www.khan.co.kr> 경향신문
- <https://www.hankookilbo.com> 한국일보
- <https://www.hani.co.kr> 한겨레신문
- <https://www.newsis.com> 뉴시스
- <https://segynews.com> 세계뉴스
- <https://www.sedaily.com> 서울경제
- <https://www.chosun.com> 조선일보
- <https://www.sisajournal.com> 시사저널
- <https://news.lghellovision.net> Hello tv News
- <https://www.peoplepower21.org/magazine/716468> 참여연대
- <https://www.pn.or.kr> 평화뉴스
- <https://www.ohmynews.com> 오마이뉴스